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제38회 청소년정책포럼

후기청소년 지원정책의 과제와 방향

일시 | 2020년 12월 17일 (목) 14:00~16:00

장소 | 온라인 생중계

주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ROGRAM

❖ 일시 | 2020년 12월 17일 (목) 14:00~16:00

❖ 장소 | 온라인 생중계

❖ 주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프로그램

시 간	행 사 내 용
13:30~14:00	온라인 접속
14:00~14:10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개회사: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14:10~14:40	• 주제발표 환경변화에 따른 후기청소년 정책 발전방향 김기현 선임연구위원
14:40~14:50	휴 식
14:50~15:30	• 지정토론 - 좌 장: 김형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립·역량연구실장 - 토 론: 강영배 대구한의대학교 교수 김 민 순천향대학교 교수 유성렬 백석대학교 교수 전성민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이사장
15:30~16: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6:00	폐 회

CONTENTS

주제발표

- 환경변화에 따른 후기청소년 정책 발전방향..... 1
김기현 | 선임연구위원

토론

1. 강영배 | 대구한의대학교 교수..... 31
2. 김 민 | 순천향대학교 교수..... 34
3. 유성렬 | 백석대학교 교수..... 38
4. 전성민 |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이사장..... 41

주제발표

환경변화에 따른 후기청소년 정책 발전방향

김기현 | 선임연구위원



청소년정책포럼

후기 청소년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김기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12. 07.

KY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 연구 목적 및 내용, 방법

KY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1. 연구 목적 및 내용, 방법

0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19-24세 연령 중복 발생
- 2 청소년정책에서 후기 시기를 어떻게 가져갈지 논의 필요
- 3 제6차 기본계획에서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만 포괄
- 4 환경 변화에 따른 후기 청소년 정책방향 설정

• 이 발표는 여성가족부의 수탁 과제로 이루어진 '환경변화에 따른 후기 청소년 정책 발전방향 연구(장근영, 김기현, 2020)'의 결과를 요약한 것임.

NF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3

01. 연구 목적 및 내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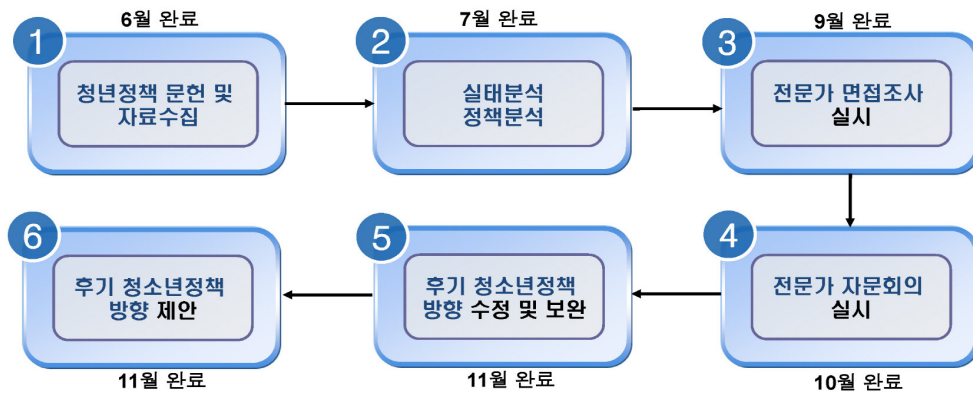
02 연구내용



NF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4

01. 연구 목적 및 내용, 방법

03 연구절차 및 일정



2. 후기 청소년에 대한 논의

02. 후기 청소년에 대한 논의

01 이론적 논의



- 1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
이전숙, 이희자(1997), 오치선, 김진화(1998)
- 2 초기 청소년기의 마지막 무렵(late)으로 정의
오치선, 김진화(1998)
- 3 성인으로의 이행기(post)로 정의
전상진, 정준훈(2006)
- 4 별도의 성인 도래기(Emerging)로 정의
주경필(2015)
- 5 이 연구에서는 독립적인 시기 아닌 이행기로 정의
김기현(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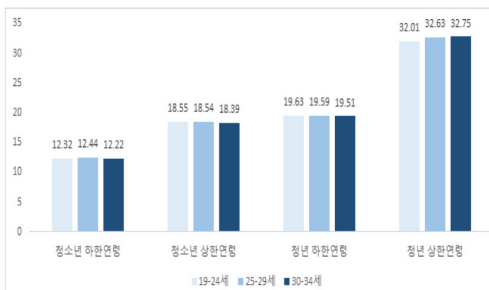
02. 후기 청소년에 대한 논의

02 정책적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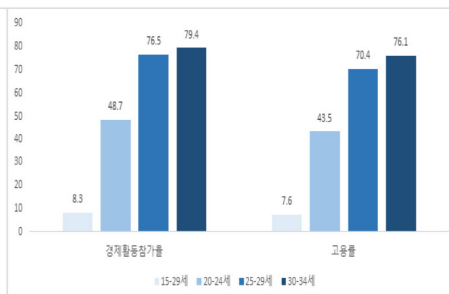
정책적 차원에서 특정 연령집단을 역연령(歷年齡: chronological age) 활용해 정의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연령과 사회적 역할 취득(취업자, 부모 등) 등을 고려 후기 청소년을 19~24세로 설정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청소년 연령(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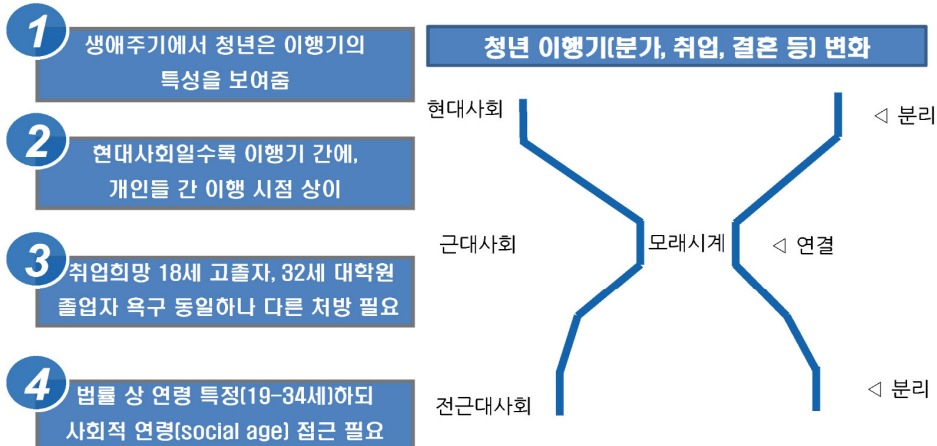
〈생애전반기 경제활동참여율과 고용률(2019)〉



자료: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

02. 후기 청소년기에 대한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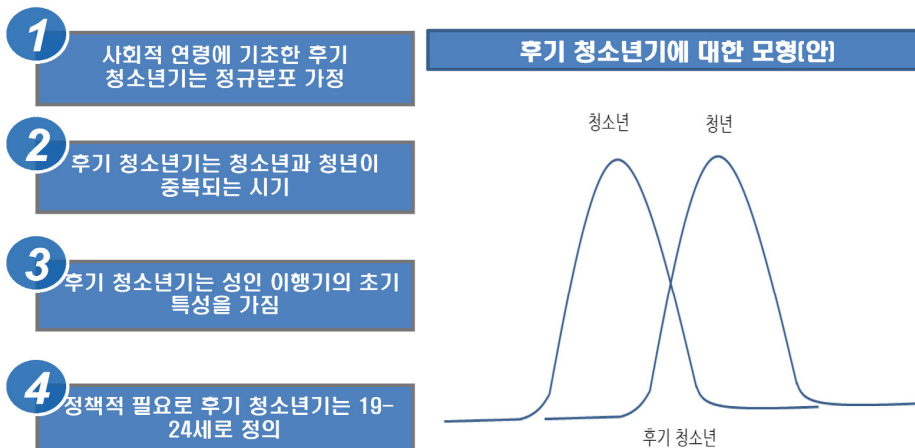
03 이행기로서의 후기 청소년기



NF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9

02. 후기 청소년에 대한 논의

04 후기 청소년기에 대한 모형(안)



NF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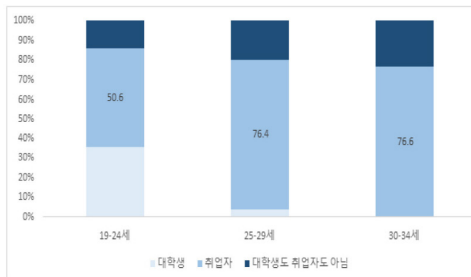
02. 후기 청소년에 대한 논의

05 후기 청소년기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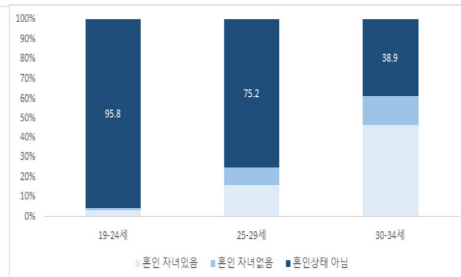
34세까지 청년과 19-24세 후기청소년의 특성을 비교해 별도로 다를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

취업자 비율에 있어서 25-34세가 유사하고 19-24세는 이질적, 혼인 및 자녀 유무는 30세 이후 본격화

〈생애전반기 대학생, 취업자 비율(2019)〉



〈생애전반기 혼인 및 자녀유무 비율(2019)〉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KYR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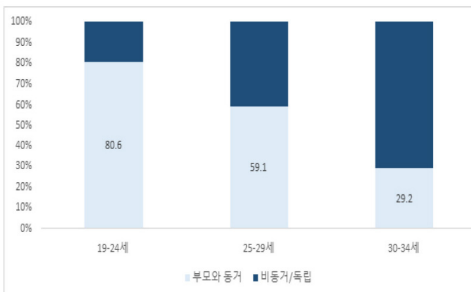
02. 후기 청소년에 대한 논의

05 후기 청소년기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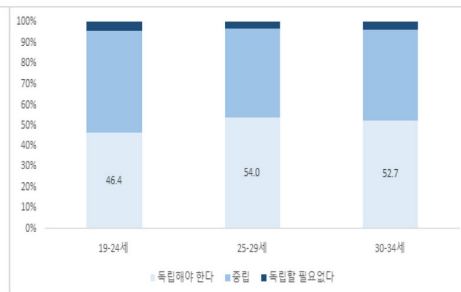
부모와의 동거비율은 25세 이상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후기 청소년기는 중기 청소년기와 유사

부모와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은 19-24세 후기 청소년기에서 낮게 나타남.

〈생애전반기 부모 동거 비율(2019)〉



〈생애전반기 부모 독립에 대한 의견 비교(2019)〉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KYR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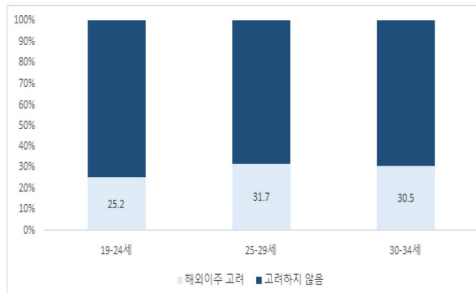
02. 후기 청소년에 대한 논의

05 후기 청소년기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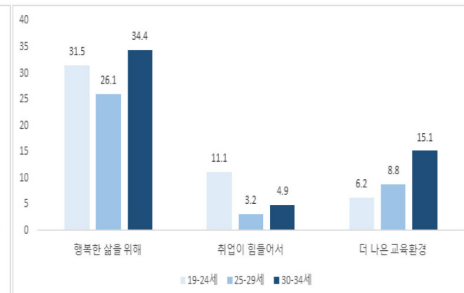
후기 청소년의 경우 헬조선 논란 관련 상대적으로 해외이주를 고려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낮음.

후기 청소년이 해외이주를 고려한 이유로 "취업이 힘들어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생애전반기 해외이주 고려 의견 비교(2019)〉



〈생애전반기 해외이주 고려 이유 비교(2019)〉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KYR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3

3. 후기 청소년 환경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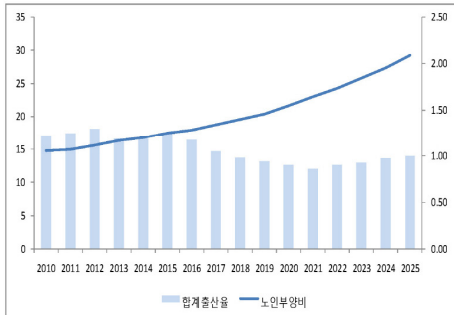
KYR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3. 후기 청소년 환경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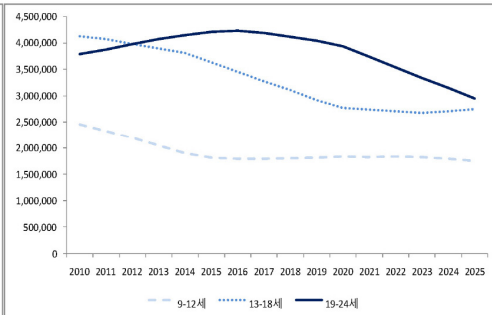
01 인구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청년 인구 비중이 낮아지고 있어 한 명 한 명의 청소년이 소중해 지는 시대 도래
- 2015년을 기점으로 후기 청소년(19-24세) 인구 감소, 2025년까지 후기 청소년 비중이 가장 크게 감소

〈합계 출산율과 노인부양비 변화〉



〈전기, 중기, 후기 청소년 인구 변화(명)〉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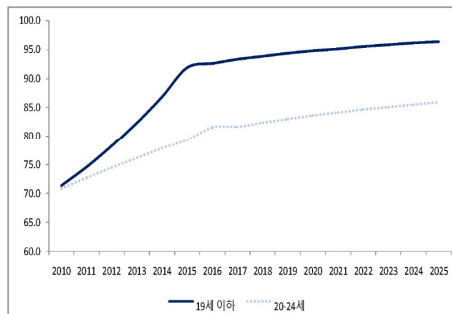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5

03. 후기청소년 환경변화

02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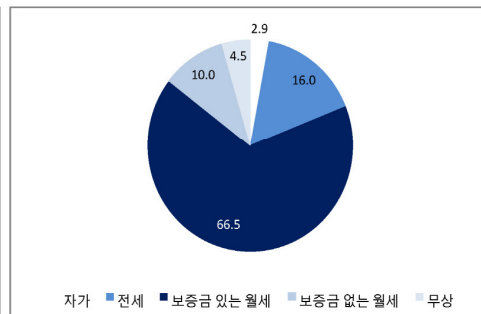
- 가족구조 변화에서 가장 주된 경향은 19-24세 가구주의 경우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임.
- 20대 단독 가구의 주거 점유 형태 중 월세(보증금 없는 경우 포함)가 76.5%로 다수 차지, 지옥고 등 열악

〈후기 청소년 1인 가구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대 단독가구 주거 점유형태 분포(%)〉



자료: 국토부 2018년 주거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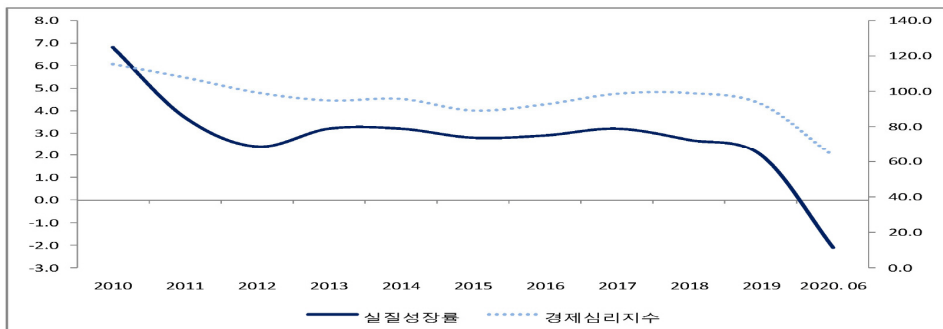
03. 후기청소년 환경변화

03 경제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2020년 들어 크게 하락해 후기 청소년들의 취업에 악영향을 미침.

기업이나 개인에게 향후 경기 전망을 물어보는 경제심리지수(100이상 긍정)도 63.1로 크게 낮아짐.

〈경제성장률 및 경제심리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NF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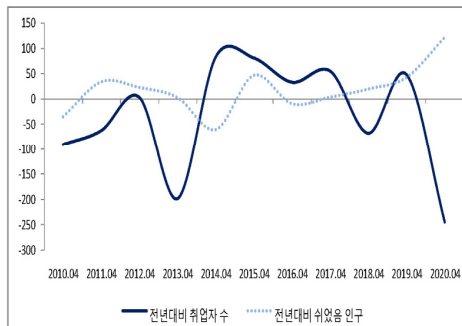
03. 후기청소년 환경변화

04 일자리

청년(15-29세) 취업자는 20년 4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24만 5천 명 감소, 쉬었음 인구는 12만 2천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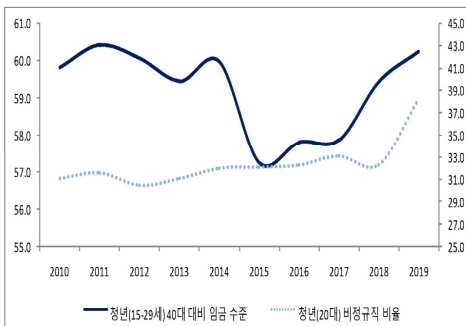
청년(15-29세) 임금수준은 40대 100일 때 60.2로 최근 반등했으나 코로나19로 증가 예상, 비정규직 확대

〈청년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및 쉬었음 인구(천 명)〉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40대 대비 청년 임금수준 및 비정규직 비율(%)〉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http://laborstat.moel.go.kr>)

NF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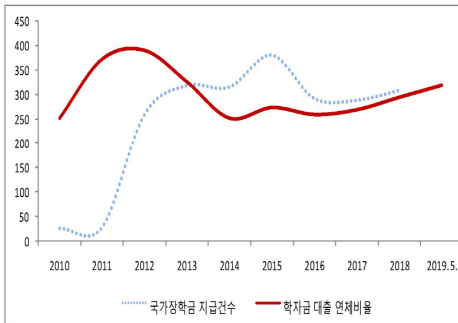
03. 후기청소년 환경변화

05 교육

- 대학 진학률은 감소 중이며 국가장학금 지급은 확대 중이고 학자금 대출에 따른 연체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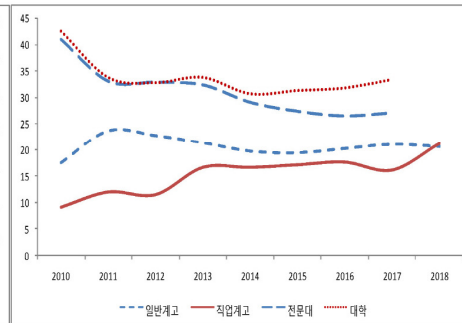
- 직업계고 졸업자의 미상자 비율이 크게 증가, 고등교육 졸업자의 미상자 비율이 크게 나타남.

〈국가장학금 지급건수(만 건) 및 학자금대출 연체비율(%)〉



자료: 한국장학재단

〈중등 및 고등교육 졸업자 미상자 비율(%)〉



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index>)

인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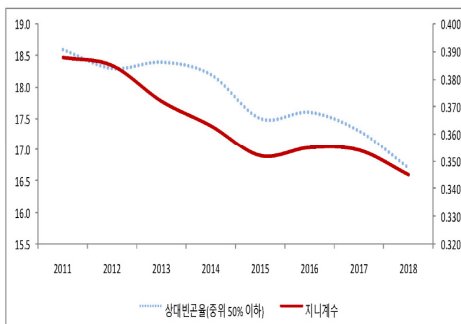
03. 후기청소년 환경변화

06 사회 불평등

- 2019년까지 대표적인 사회불평등 지수(상대빈곤율, 지니계수)는 지속적으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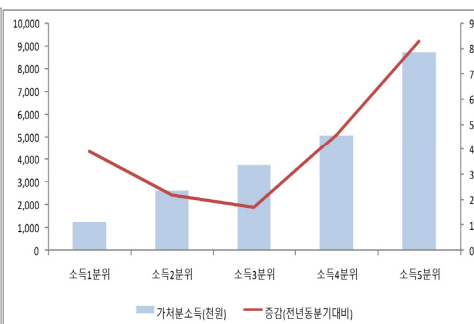
- 2020년 들어 소득계층 간 소득 격차가 확대, 1/4분기 5분위와 1분위 전년동기대비 각각 8.3%p, 3.9%p

〈우리나라 상대빈곤율(%) 및 지니계수 추이〉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년 1/4분기 소득분위별 소득(천원) 및 전년대비 증감〉



인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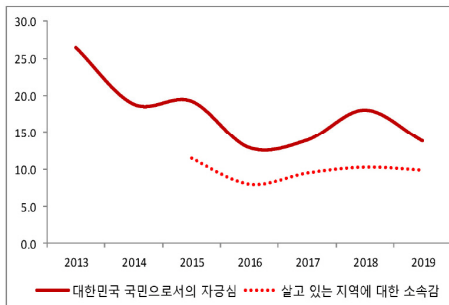
03. 후기청소년 환경변화

07 사회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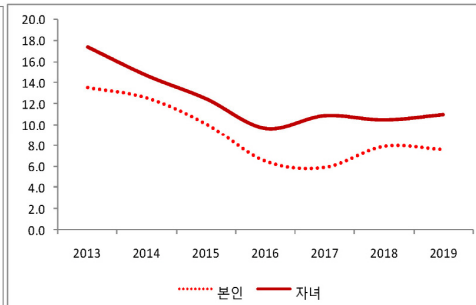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은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

본인 및 자녀가 이후에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긍정응답비율은 최근으로 갈수록 감소

〈대한민국 자긍심 및 지역소속감 추이(%)〉



〈지위 향상 가능성에 대한 긍정응답 비율(%)〉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인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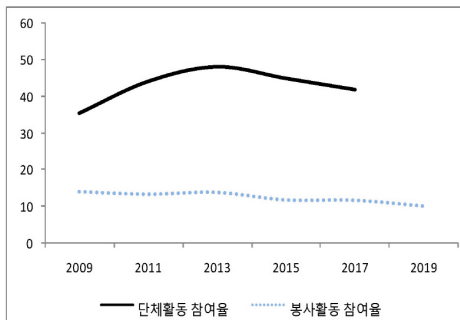
03. 후기청소년 환경변화

08 사회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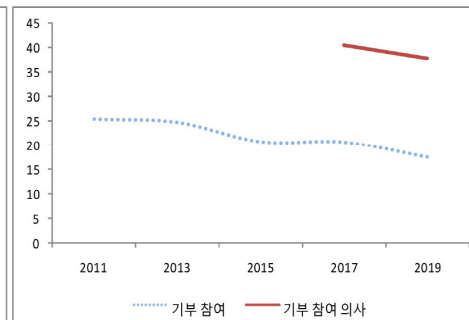
20대 단체 및 봉사활동 등 긍정적인 사회 참여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줌.

기부 참여와 기부에 참여하겠다는 의사 역시 최근 들어 감소세를 보여줌.

〈20대 단체 및 봉사활동 참여율 추이(%)〉



〈20대 기부 참여 및 기부 의사비율 추이(%)〉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인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2

4. 후기 청소년 정책 현황 및 문제점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4. 후기 청소년 정책 현황 및 문제점

01 국정과제

- 1 아동, 청소년 건강한 성장지원 과제 포함되나 10대중심 추진
- 2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가계부채, 교육 과제 부분적 반영
- 3 주거, 생활보장, 의료 분야는 후기 정책에서 소외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4

04. 후기 청소년 정책 현황 및 문제점

02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18. 3. 15)

- 1 후기 중심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으로 졸업 후 2년 이내 지원
- 2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15세부터 지원이나 중기 취업 전제
- 3 선취업-후진학을 위한 일학습병행제도 이행기 지원 형태

04. 후기 청소년 정책 현황 및 문제점

03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18. 7. 5)

- 1 청년 주택 및 기숙사 공급과 금융 지원 중심
- 2 전, 월세 대출 지원은 주로 중소기업 취업자 중심
- 3 취준생, 대학생, 주거 취약계층, 1인 가구 지원은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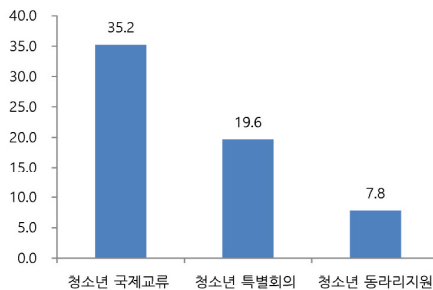
04. 후기 청소년 정책 현황 및 문제점

04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후기 청소년정책

청소년 국제교류 후기 청소년 대상 비중이 가장 높으며 참여기구와 동아리 활동이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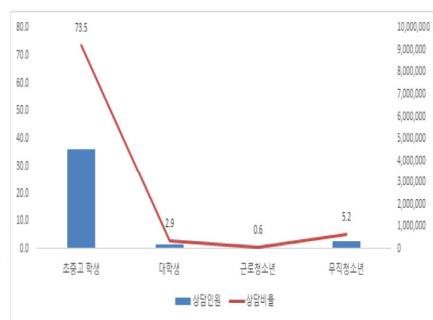
청소년 상담 분야는 대학생, 근로청소년 등 후기 청소년 비중은 매우 낮은 편

〈청소년 참여 및 활동 후기 청소년 참여비율(%)〉



자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제교류는 2018, 나머지는 2020 기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대상별 상담실적(명, %)〉



자료: 청소년백서(2019)

04. 후기 청소년정책 현황 및 문제점

04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후기 청소년정책

1 청소년 참여와 국제교류 사업이 후기 청소년 대상 사업

2 청년 일자리 사업 범위에 포함, 주거 등은 제외

3 청소년 보호와 취약계층 대상별 지원은 10대 중심

4 자립지원관과 내일이룸학교 등 직접 사업은 부족, 소규모

04. 후기 청소년정책 현황 및 문제점

05 청소년기본법과 청년기본법 비교

구분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	비고
정의	제3조(정의)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정의)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19세-24세 연령 정의 중복 - 법령/조례 단서조항 통해 달리 적용 가능
정책 영역	제3조(정의) 2. "청소년육성"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제51조(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 제52조(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 제52조의3(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제18조(청년 창업지원)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제20조(청년 주거지원) 제21조(청년 복지증진)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제24조(청년 국제협력 지원)	- 청소년 영역에서 일자리, 주거, 금융 생활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청소년과 청년 공통 영역으로 참여 혹은 자치권과 복지, 근로권익 보호 등이 포함
추진 체계	제9조(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제20조(청소년지도자의 양성) 제25조(청소년육성 전달공무원)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16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 총괄조정기구는 청소년 부처 장관, 청년 국무총리로 위상이 다름. - 청소년분야는 시설,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9

5. 해외 사례

05. 해외 사례

01 청[소]년에 대한 정의

국제적으로 하한 연령 15-20세, 상한 연령 25-29세가 가장 많으며 15-24세 이행기 중심 정책 추진

전 세계 청(소)년(youth) 정책 하한 연령규정		전 세계 청(소)년(youth) 정책 상한 연령규정	
상한 연령	국가들	상한 연령	국가들
0세 부터	14개국 - 미국, 핀란드, 일본, 독일 등	19세 이하	3개국 - 영국, 이스라엘, 미얀마
1-9세 이하	7개국 - 프랑스, 아이슬란드 등	20-24세 이하	21개국 - 호주, 부탄, 네덜란드 등
10-14세 이하	48개국 - 영국,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등	25-29세 이하	62개국 - 미국, 핀란드, 독일 등
15-20세 이하	111개국 - 아일랜드, 이탈리아, 덴마크 등	30-34세 이하	48개국 - 일본, 프랑스, 등
21세 이하	0개국	35-39세 이하	43개국 - 이탈리아, 이집트 등
		40세 이상	3개국 -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네팔
		연령규정 없음	9개국 - 바레인, 포르투갈 등

출처: youthpolicy.org(www.youthpolicy.org)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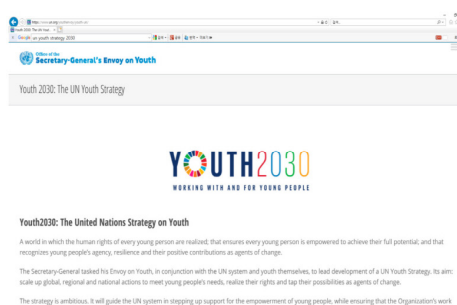
05. 해외 사례

02 청[소]년정책의 방향

국제연합 Youth2030 발표, 대상을 위한 정책을 넘어서 기후변화 등 청년이 선도하는 사회정책 추진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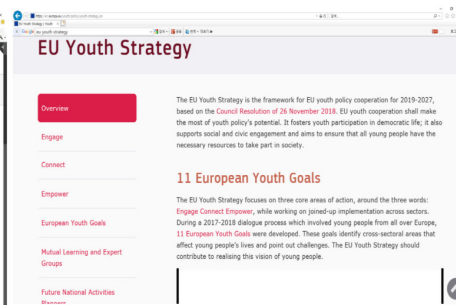
유럽연합도 새로운 유스 전략에서 사회 참여(Engage), 연계(Connect), 권한(empower) 세 가지 전략 강조

〈국제연합(UN)의 유스2030(2018)〉



자료: <https://www.un.org/youthenvoy/youth-un/>

〈유럽연합(EU)의 유스전략 2019-2027(2018)〉



자료: https://ec.europa.eu/youth/policy/youth-strategy_en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32

05. 해외 사례

03 대표적인 청(소)년 정책 사업

- 1 EU 학교 졸업 후 여행기 첫 출발 보장에 초점
- 2 취약계층 사업 규모와 예산이 크고 실효성이 높음
- 3 주거 교육과 주거 상담, 공유주택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짐
- 4 참여예산제 등 실질적인 참여와 권한 부여가 중요

6. 후기 청소년 심층 면접

06. 후기 청소년 심층 면접

01 후기 청소년의 일과 삶

- 1 카페가 중요한 생활공간 – 후기 청소년 공간 지원 필요
- 2 불규칙한 생활 – 후기 청소년 건강에 대한 접근 필요
- 3 부당한 노동과 처우 – 일자리 환경 개선 접근 필요
- 4 진로에 대한 혼란 – 진로 문제에 대한 접근 필요

06. 후기 청소년 심층 면접

02 후기 청소년 정책

- 1 상담에 대한 높은 수요 – 후기 청소년 대상 상담 중요
- 2 불규칙한 생활 – 후기 청소년 건강에 대한 접근 필요
- 3 낮은 정책 인지도 – 체감도 높은 사업 확대 필요

7. 후기 청소년 정책 방향과 과제

NF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7. 후기 청소년 정책 방향과 과제

01 후기 청소년 실태/환경분석 시사점



NF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38

07. 후기 청소년 정책 방향과 과제

02 후기 청소년 정책 개선방향



07. 후기 청소년 정책 방향과 과제

03 해외 사례 분석 시사점



07. 후기 청소년 정책 방향과 과제

04 후기 청소년 정책 과제 제안

정책영역	정책과제(안)
1. 후기 청소년 참여 및 활동	1-1. 청소년 및 청년 참여기구 활동 연계(가칭 젊은 시민 원탁회의) 1-2. 후기청소년 역량기반 활동 활성화(후기 인증프로그램, 동아리 확대)
2. 후기 청소년 복지 및 건강	2-1. 소득 및 자산형성 지원 추진(청소년 자산형성 연구, 리빙랩 추진) 2-2. 취약 후기청소년 자립지원 강화(내일이룸학교 등 본사업으로 확대) 2-3. 후기청소년 건강권 보호 강화(청소년 안전망 후기 지원 강화)
3. 후기 청소년 일자리 및 주거, 금융	3-1. 후기청소년 일자리 환경 개선(청소년 근로보호센터 대상, 기능강화) 3-2. 후기청소년 주거 및 금융교육 확대(청소년센터 중심 생활교육 실시)

07. 후기 청소년 정책 방향과 과제

04 후기 청소년 정책 과제 제안 - 1. 젊은 시민 원탁회의

1

청소년과 청년 참여기구 의제 개발 연계

2

유럽연합에서 실시하는 구조화된 대화와 유스컨퍼런스 모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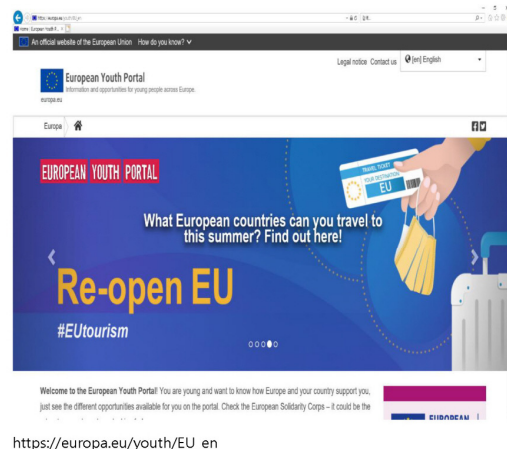
3

여성가족부 청소년 특별회의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참여단 연계

4

1년에 한 번 가칭 젊은 시민 원탁회의 등 의제 연계

<유럽연합의 구조화된 대화(Structured Dialog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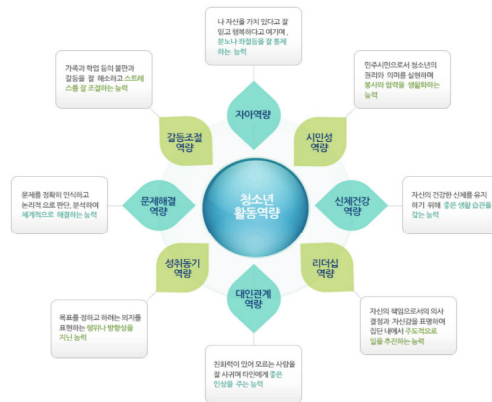


07. 후기 청소년 정책 방향과 과제

04 후기 청소년 정책 과제 제안 - 2. 후기 청소년 역량기반 활동 활성화

- 1 6차 기본계획 역량 기반 활동 프로젝트 후기 청소년 대상 확대
- 2 교육부, 법제처, 방위위 등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업 연계
- 3 청소년 동아리 후기 청소년 대상 확대 및 미래 핵심 의제(기후변화 등) 논의
- 4 청소년 국제교류 미래 핵심 의제 중심으로 논의

〈8대 청소년 활동 역량의 개념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https://nyc.kywa.or.kr>).

NV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43

07. 후기 청소년 정책 방향과 과제

04 후기 청소년 정책 과제 제안 - 3. 소득 및 자산형성지원 추진

- 1 아동기 자산형성지원사업 및 수당 지급, 청년기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추진 중
- 2 청소년기는 자산형성이나 소득 지원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 3 청소년 시기의 자산형성이나 소득 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 검토
- 4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리빙랩 등 실험설계 기반 연구 및 시범사업 추진

〈아동발달계좌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



<https://www.adongcda.or.kr/>

NV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44

07. 후기 청소년 정책 방향과 과제

04 후기 청소년 정책 과제 제안 - 4. 취약 후기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1

후기 청소년의 자립지원 사업이 예비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음

2

청소년 시설 퇴소 지원도 보호종로 아동 수준으로 수당 및 주거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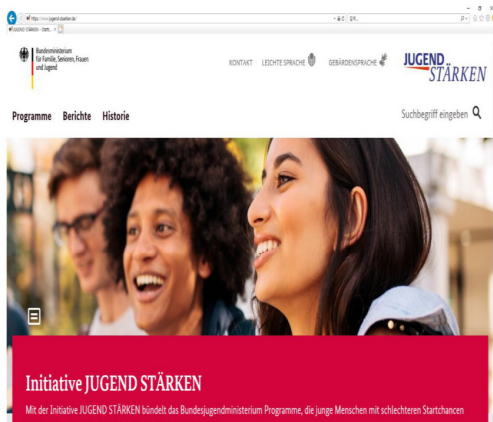
3

독일의 청소년을 강화게! 프로젝트처럼 내일이룸학교 대규모 프로젝트로 전환

4

청소년 사회안전망에 후기 청소년 상담 지원 등 확대

<독일의 청소년을 강화게!(JUGEND STÄRKEN) 홈페이지>



<https://www.jugend-staerken.de/>

인국청소년정책연구원 | 45

07. 후기 청소년 정책 방향과 과제

04 후기 청소년 정책 과제 제안 - 5. 후기 청소년 건강권 보호 강화

1

후기 청소년의 건강 문제가 코로 나블루 등 사회적 화두로 대두

2

후기 청소년의 마음 건강을 지원하는 사업 확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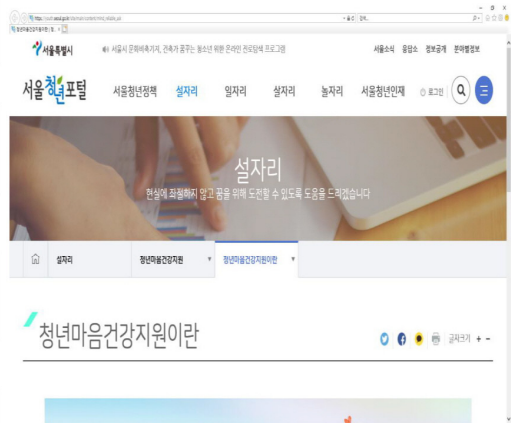
3

여성가족부 생리대 바우처 사업 후기 청소년 확대 검토

4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추진 검토

<서울시의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 안내 사이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https://nyc.kywa.or.kr>)

인국청소년정책연구원 | 46

07. 후기 청소년 정책 방향과 과제

04 후기 청소년 정책 과제 제안 - 6. 후기 청소년 일자리 환경 개선

1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보호 중심으로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사업 추진

2

후기 청소년 대상 일자리 환경과 관련하여
상담, 교육, 중재 해결 포괄 필요

3

청소년 근로보호센터의 정책 대상 확대 및
명칭 변경 검토

4

청년 재직자의 직장 내 갑질, 고객응대
과정에서의 갑질, 성희롱, 성폭력 등 대응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홈페이지>



https://youthlabor.kr/main/index.html

인국청소년정책연구원 | 47

07. 후기 청소년 정책 방향과 과제

04 후기 청소년 정책 과제 제안 - 7. 후기 청소년 주거 및 금융교육 확대

1

본격적인 주거 및 금융 지원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에서 추진 중

2

예방적인 차원에서 후기 청소년 대상 주거
및 금융 교육 실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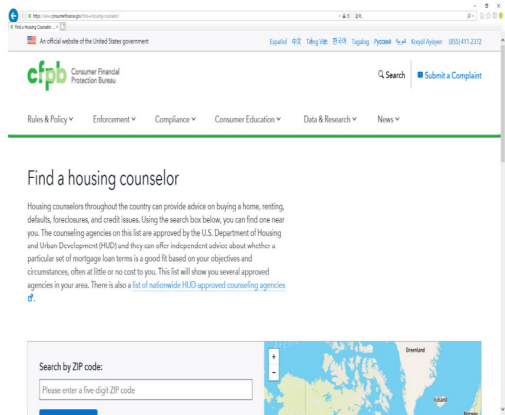
3

청소년센터에서 주거 및 금융 교육
프로그램 추진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부채 및 금융 상담
지원 방안 검토

<미국의 주거도시개발부(HUD)의 주거상담사 사이트>



https://www.consumerfinance.gov/find-a-housing-counselor/

인국청소년정책연구원 | 48

감사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토론

▶ 좌 장 : 김형주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립·역량연구실장

▶ 토 론 : 강영배 | 대구한의대학교 교수

김 민 | 순천향대학교 교수

유성렬 | 백석대학교 교수

전성민 |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이사장



토론 1

후기청소년(기)의 개념적 명확성과 집단적 동일성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정책적 과제

강영배 | 대구한의대학교 교수

1. 후기청소년(기)를 이론적, 정책적 관점에서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발표에서도 인용하고 있는 Jones and Wallace(1992)는 청소년기에서 후기청소년기가 분리된 이유로 사회의 재생산구조의 해체와 개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불명확성의 증대를 들고 있다. 즉, 고등교육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취업이 힘들어지면서 사회가 그들에게 기대하던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짐으로 인해 새로운 ‘시기’가 등장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Arnett(1998, 2004)은 후기청소년기 또는 청년기를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에 몇 년으로, 자기에 집중하는 시기이며, 이 시기는 혼자 힘으로 서는 법을 여러 가능성을 중에서 무언가를 자주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라고 보고 있다. 한국 사회의 소위 후기청소년으로 불리는 이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인식하고 있는가(발달 단계상 자기정체성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이론적 틀을 구축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이전 세대와의 차이점을 발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즉, 시대적, 사회적 흐름에 편승한 당위적 관점에서 후기청소년기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이 강조되다 보면 이들의 발달적 특성, 의식적 특성 등을 간과한 채 정책이 홀로 대양(大洋)을 떠돌아다니는 우를 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후기청소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특히 한국적 상황(후기청소년들의 자립의식, 수도권·비수도권이라고 하는 지리적, 공간적 특성, 부모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고려한 그들의 특성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2. 후기청소년을 ‘한 덩어리’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후기청소년들은 각자 상이한 개인적 특성, 가정환경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야 할 것으로 본다. 즉, Arnett의 표현을 빌리자면, 후기청소년기는 ‘자기에 집중하는 시기’이며, ‘자신의 진로를 자주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인데, 후기청소년들 가운데는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진로결정을 유예하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반대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진로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이에, 후기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 또는 관심을 영역별로 분류하고 문제 양상에 적합한 과제 발굴이 필요해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시민교육, 취업 및 진로, 상담, 참여(특히, 지역사회 참여), 여가활동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한 보다 세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실행과제를 발굴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때 청소년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후기청소년들 가운데 ‘적응(또래 및 이성관계, 진로, 학생생활, 가족관계 등)’ 상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책들이 확충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제안하신 내용 가운데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 대한 제안이 보이지 않는다. 본 연구의 주제가 ‘환경변화에 따른 청년 정책의 방향성’이란 점에서 환경변화에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변화와 더불어 심리적, 정서적 변화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현재의 후기 청소년들 가운데 상당수는 입시 및 취업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친구와의 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장기간 외출을 하지 않는 등 대인관계를 기피하고 있다. 이에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후기청소년에 대한 생활밀착형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다. 즉, 스트레스 정도, 게임 및 스마트폰 중독, 우울, 불안 등과 같은 분야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기초한 보다 실질적인 정책적 제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각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재구조화 또는 역할 재조정의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진로탐색과 관련해서는 청소년수련시설들이 후기 청소년 대상 ‘갭 이어’, ‘인턴십’, ‘장기봉사체험’ 등과 같은 후기 청소년 대상 진로 관련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지금까지 청소년정책에서 후기청소년기를 어떻게 조망해왔는가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청소년기본법이 시행된 1992년 이래, 청소년정책은 ‘13-18 프레임’이 간혀온 것이 사실이다. 즉, 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해온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발표자료(04)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대학생 상담실적은 중고등학생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동아리 활동 및 참여기구 참여비율에서도 후기청소년

년은 정책대상의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에서도 후기청소년을 위한 사업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 청소년전문가(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양성과정에서도 후기청소년과 관련된 내용(발달적 특성, 의식적 특성, 사회환경적 특성 등)을 다룸에 있어서는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인상이 든다. 이에 왜 그랬을까? 에 대한 질문과 답을 찾기 위한 분석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감각적으로는 짐작되는 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청소년계 전체가 향후 청소년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해나가는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 지금처럼 ‘13-18 프레임’을 유지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필요하다면 정책대상의 ‘이동(shift)’, 정책대상에 대한 전략적 판단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에 본 보고서는 그러한 논의를 위한 귀중한 단초가 될 것으로 본다.

4. 후기청소년 정책과제에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의 역할과 관련된 과제가 제시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안해주신 내용들을 현장에서 추진할 사람들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와 같은 청소년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본 발표에서 제안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후기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사업, 정책도 포함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제안된 내용들에 대한 실행계획 또는 실행과제가 마련된다면, 행정부서에서 참고하는 참고자료 이상으로 현장에서도 사업 실행을 위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추후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전문가 대상 후기청소년정책 설명회를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토론 2

후기청소년 지원정책,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의 교두보가 되길

김 민 | 순천향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청년정책’과 관련해 청소년분야에서도 지원 가능한 정책과제가 있는지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그 방향과 구체적인 대안들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는 올해 8월 청년기본법이 발효되면서 당장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연령과 중첩이 되는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연령, 곧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 가능한 정책과제를 3개의 영역, 7개의 세부 정책과제로 도출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후기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청소년분야에서 다른 연령에 비해 그간 비중 있게 다루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청소년현장에서 후기청소년은 청소년연령에 포함은 되었으나,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시피 한 연령대란 점에서 이 연구는 청소년현장(현장분야)과 청소년연구(이론분야)에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실제로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청소년수련시설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포함하는 청소년복지기관과 청소년복지시설들에서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그리 많지 않았고, 연구진계서도 발표자료 모두(冒頭)에 언급하고 있듯이 선행연구도 충분한 편은 아닙니다. 이런 맥락에서 후기청소년 지원정책을 구안하는데 있어 그들의 생활환경과 정책 환경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외국의 사례를 통해 주요 시사점을 발굴하며 동시에 후기청소년 대상 개별심층 인터뷰로 이들의 요구를 드러내어 정책과제를 도출한 이 연구는 시의성은 물론이고 연구가 갖는 정책적 중요성 역시 크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토론자는 그동안 연구진의 연구노력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연구 성과 역시 의의가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연구의 성과에 덧붙여 토론자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부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무래도 정책을 다루는 자리이니만큼 정부차원에서 **청년 정책의 기초와 방향에 부합되는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청년기본법 제13조 규정에 근거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통해 청년정책기본계획 심의 등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산하에 청년정책추진단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정부차원에서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진에서도 언급하고 있듯, 『유럽연합 청(소)년 전략(EU Youth Strategy) 2019-2027』은 3가지 핵심영역(core area)으로 사회참여(Engage), 연계(Connect), 권한부여(Empower)를 천명하고 있는 바, 향후 우리나라 청년정책기본계획은 어떤 기조와 원칙을 세울지 자못 궁금하기만 합니다. 향후 청년정책기본계획이 발표된다면 그 기조와 원칙, 그리고 방향이 공개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연구진이 제시한 방향과 과제가 그 계획과 얼마나 부합되는지는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현재 연구진께서 제시하고 있는 3가지 영역은 토론자가 보기에는 확실히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틀(framework)을 준용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정책의 차원에서 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정책방향과 과제를 구안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후기청소년 지원정책은 청년정책의 입장에서 보면 후기청소년 역시 청년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니 만큼 역시 청년정책의 기조와 원칙에도 부합하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둘째, 동시에 이런 방향과 원칙은 청소년정책과도 연동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청소년과 청년의 연령구분을 논의하기 전에 사회 진입단계에 이르는 인간의 전 생애발달단계에 대한 국가 정책의 방향과 원칙, 기조는 일관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이 그리고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이 따로 논다면, 그리고 각각의 정책이 상호 연계성을 잃는다면, 이를 실행하는 단위나 정책의 수요자가 정책에 대해 얼마나 실감하며, 정책의 실효성은 얼마나 높을까요? 그런 점에서 저는 후기청소년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이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의 상호 연동성을 높이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의 교두보로서 후기청소년 지원정책이 자리매김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셋째, 이 연구를 통해 - 특히 질적 연구를 통해 - 후기청소년을 중심으로 청년세대가 우리사회, 혹은 전(前) 세대에 갖는 본질적인 욕구와 갈등의 원천을 좀 더 드러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욕구와 갈등의 원천은 청년세대를 위한 우리사회의 지원방향과 지원정책의 효과와도 매우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그들의 욕구와 원천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구안한(그들의 욕구와 원천에 근거하지 못한) 지원방안은 임시처방과 같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흔히 사회 불평등과 관련해 일컫는 ‘금수저, 흙수저 담론’은 현대사회 빈부 양극화의 세대물림 현상(아빠찬스 등)과 매우 밀접합니다. 사실 빈부 양극화에 대한 비판은 어제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사회 불평등은 ‘**자원배분의 공정성**

과 기회 평등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며 사회적 갈등을 빚어내는 우리사회의 주요 갈등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갈등의식은 세대 내, 세대 간 사회이동의 사다리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실정에서(오성재, 주병기, 2017), 중국에는 이 신분의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의 증표¹⁾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오늘날 사회불안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인식은 일찍이 Turner(1975)를 통해 사회적 경쟁(social competition)이란 개념으로 불린 바 있습니다. 즉 그는 제한된 자원을 세대 간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세대 갈등이 나타난다고 보고 이를 사회적 경쟁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즉, 세대 간의 이익을 위해 다투게 되며 상반된 목표가 세대집단 사이에 부정적인 태도와 갈등을 발발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사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대 간의 단절과 분절에서 갈등이 격화되는 것은 급격한 인구·사회적 변화 속에서 주류적 가치관이 여론과 경제적 자원 배분을 주도하는 상황이 정당성을 잃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정해식·김미곤·여유진·김성근·류연규·우선희·김근혜, 2018). 더욱이 현대사회는 여러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주류의 힘이 점차 약화되고 오히려 새로운 세대의 힘으로 전치되면서, 정당성과 공정성의 기존 가치가 새로운 의미를 갖는 신 가치로 대체하는 시기란 점에서 세대갈등의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청년세대에 대한 어른세대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복지 지원정책이 얼마나 청년계층의 욕구와 수요에 부합되어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자에 따르면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어른세대가 마치 '생색내듯이 던지는 정책'으로 청년을 유혹해서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도 경청해 볼만 합니다.

현재 사회 불평등에 대한 후기청소년의 인식은 과거 빈부격차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과는 다르다고 보입니다. 개별심층면접을 통해 이런 사회 불평등에 대한 후기청소년들의 의식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런 후기청소년의 인식이 드러날 만한 증거가 있다면 **사회 자원배분의 공정성과 기회 불평등에 대한 청년세대의 의식**에 더해 거시적 차원에서 정책적 방향의 시사점을 더욱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많이 공부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 위기의식의 증표로 상징되는 것이 3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여기에 취업과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5포세대, 7포세대(5포세대+건강, 외모관리), 9포세대(인간관계, 희망), 10포세대(삶)란 신조어가 있음. 일본의 사토리 세대, 유럽의 1000유로세대, 이케아세대 등이 이와 유사함.

참고문헌

- 오성재, 주병기(2017). 한국의 소득기회불평등에 대한 연구. *재정학연구*, 10(3), 1-30.
- 정해식·김미곤·여유진·김성근·류연규·우선희·김근혜 (2018).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Turner, J. C. (1975). Social comparison and social identity: Some prospects for intergroup behavio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 5-34.

토론 3

후기청소년 지원정책의 과제와 방향에 대한 토론문

유성렬 | 백석대학교 교수

- 후기 청소년에 대한 연령 정의에 기초하여 이 시기와 관련한 제반 사회 환경의 특성 및 현행 정책과 해외 사례 등을 분석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을 통하여 직접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방향을 제시한 의미 있는 연구임
- 청소년 및 후기 청소년과 관련한 여러 법령에서의 상이한 연령 정의 내용을 검토하고, 사회적 역할에 초점을 두어 후기 청소년의 연령을 19~24세로 정의한 것은 이론적 및 실천적 관점에서 매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본 발표에서 언급한 후기 청소년의 상황에 대한 논의를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임

환경 변화	정책 문제점	청소년 의견
(인구) 청소년 인구 감소	10대 중심의 성장지원 정책	공간 수요 확대
(가족) 후기청소년 1인가구 증가	주거, 생활보장, 의료 분야 소외	건강 문제
(경제) 경기악화로 인한 취업난 가중	구직활동지원금 지원 기한	일자리 환경 개선
(일자리) 취업자 감소	중소기업 취업자 중심 주거지원	진로 혼란
(교육) 고등교육 진학률 감소	취준생, 대학생, 주거취약계층,	상담에 대한 수요
(사회불평등) 소득 격차 확대	1인 가주 지원 부족	낮은 정책 인지도
(인식) 의식 변화	국제교류 중심의 활동정책	-
(참여) 참여 비율 감소	규모와 예산의 실효성 확보	-

- 이러한 내용은 발표문 41쪽의 정책 과제 제안으로 연결됨

정책영역	정책과제(안)
1. 후기 청소년 참여 및 활동	1-1. 청소년 및 청년 참여기구 활동 연계(가칭 젊은 시민 원탁회의) 1-2. 후기청소년 역량기반 활동 활성화(후기 인증프로그램, 동아리 확대)
2. 후기 청소년 복지 및 건강	2-1. 소득 및 자산형성 지원 추진(청소년 자산형성 연구, 리빙랩 추진) 2-2. 취약 후기청소년 자립지원 강화(내일이룸학교 등 본사업으로 확대) 2-3. 후기청소년 건강권 보호 강화(청소년 안전망 후기 지원 강화)
3. 후기 청소년 일자리 및 주거, 금융	3-1. 후기청소년 일자리 환경 개선(청소년 근로보호센터 대상, 기능강화) 3-2. 후기청소년 주거 및 금융교육 확대(청소년센터 중심 생활교육 실시)

- 제안된 정책 과제는 활동 및 참여, 복지 및 건강, 일자리 및 주거 등의 주요 영역별로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후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참여와 관련하여 후기 청소년들이 관련 정책의 입안 및 추진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특히 청소년정책위원회에 후기 청소년들 포함한 것처럼 중앙정부의 후기청소년 정책 관련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취약 후기 청소년의 자립지원과 관련한 정책을 대규모 프로젝트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
- 공간에 대한 청년의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정책화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본 발표의 핵심은 앞선 후기 청소년의 상황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사회적 변화, 정책 현황, 해외 사례 및 당사자 면접 등)으로부터 도출되는 시사점과 이에 따른 정책과제(안)의 내용과의 논리적 및 내용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앞선 그림 등에서 제시된 시사점이 어떻게 정책과제(안)과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를 통해 후기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도출되는 시사점이 어떻게 정책방향(혹은 과제)로 구체화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가능한 환경변화 등에서 도출된 모든 시사점들을 정책방향(과제)로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시사점에서 언급되었으나 정책과제에는 포함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의 추진 방향 등으로 설정하여 논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토론 4

청소년정책의 전환기-정체성과 접근방법에 대하여

전성민 |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이사장

- 청소년정책의 정체성 강화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즈음하여 정책 간 시너지효과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연구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후기청소년기의 정의, 후기청소년기의 이행, 후기청소년 기본권을 중심으로 토론하고자 함.

- 「후기청소년: 19-24세; 독립적인 시기 아닌 이행기¹⁾」와 관련하여

최근 청년정책의 추진이라는 맥락에서, 후기청소년에 대한 연구의 가치와 정당성을 확대하기 위한 전제로, 현재 19세-24세 사이에서 발견되는 주요 현상(들)이 코호트 상 새로운 인구집단으로 구분할 만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증명해야 할 것임. 즉, 청년정책과 구분되는 후기청소년정책의 정체성과 관련된 사항임.

역사적으로 기술발달이나 경제침체, 포스트모더니즘 등 사조 또는 평등권에 대한 인식의 증진에 기인한 사회변화의 파장이 젊은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시기에 따라 다양한 인구집단으로 구분(J. R. Gillis 1981)되고 있음. 이에 따라, 새롭게 발견되는 현상의 수준에 따라 이행시기를 다소 신축성 있게 조절하거나, 새로운 용어를 적용하고 있음.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J. J. Arnett가 주장하는 성인도래기²⁾(Emerging Adulthood; 18세-25~29세)(J. J. Arnett 2015)는 제외하더라도, G. S. Hall이 주장하는 청소년기(Adolescence)와 Keniston이 주장하는 Youth³⁾, 연구자가 사용하는 초기성인⁴⁾에 대해서는 후기청소년기의 특성 정리를 위해 검토가 필요함.

Hall은 청소년기(Adolescence)를 14세부터 24세로 설정하면서 ‘보다 높은 수준(higher)과 완전한 인간의 특성 때문에, 청소년기는 새로운 출현이다.(Adolescence 1907. Xiii)’

1) 연구자 정의

2) 연구자 사용용어

3) 토론의 편의 상, 청소년기(Adolescence)와 구분하기 위하여 Youth라고 기술함. 필자 주.

4) 발표자료 10쪽.

라고 주장하고 있음. 한편 K. Keniston은 제 2차 세계대전 후 도시, 중산층, 대학생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전통에 대한 재해석, 평등권의 요구 확대 등과 같은 젊은이들의 경향을 관찰한 후, E. Erikson의 지원을 받아, 18세 이상의 인구집단을 청소년기(Adolescence)와 성인기(Adulthood) 사이의 생애단계인 'Stage of Youth'로 주장(Youth and Dissent 1971. p.7)하고 있음. 따라서 1900년대 초기의 19세-24세와 1950-60년대, 2020년대의 19세-24세에 대한 코호트 분석을 통해 용어사용과 분석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그런가 하면 위에서 언급한 Youth 기간의 연장 정도로 새로운 경향에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논의의 실마리는 요즘 회자되는 기술내용과 비슷한 1980년대 문헌(Unesco 1981.)에서 참고할 수 있음.

'이미 첫 번째로 해고되고 마지막으로 채용되는 Youth는 전 세계를 괴롭히는 점차 심각해지는 어려움의 무게를 보다 많이 감내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상황은 최소한 몇 년 동안은 우리가 첫 번째 직장을 찾거나 부모의 경력패턴을 쫓아가는 안정된 삶을 즐길 수 없는 젊은 세대를 지켜보고 있어야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p.19)' ...중략... '미취업 때문에 부모에 의존하는 교육받은 30세-35세의 Youth가 다양한 사회에 존재한다.(p.27)

○ 후기청소년기의 이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원정책개발을 위하여, 후기청소년기 이행의 목표와 과제, 방법, 자원 및 정보 제공 방안에 대한 보완이 요구됨. 특히 후기청소년 개개인과 사회와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 혹은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책대상도 도시, 농촌, 여성, 남성, 노동자, 학생, 이주자, 장애인, 범죄자, 약물중독 후기청소년 등으로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일반적으로 이행은 전 생애를 걸쳐 진행되는 과정이고, 전통적으로 청소년기의 이행은 건강한 성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보유를 목표로 함. 이에 따라, 청소년기는 진행(되는) 중이고, 성인은 완료된 상태라는 2분법으로 정리됨. 졸업, 취업, 주거마련, 결혼, 부모되기 등 이행과제는 많은 부분이 기성세대의 가치관에 기초하여 수행과제와 방법, 자원, 이행의 완료상태 등이 결정되고 이에 따른 자원이 제공됨. 따라서 추진과정에서 성인에 의한 후기청소년들의 기본권 제약이 발생하고, 성인들에 대한 경계에 더하여 후기청소년들의 요구와 차이를 보임으로써, 세대 간 갈등에 의한 이행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요구됨.

연구에서 인용된 2차 자료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후기청소년의 이행은 스스로의 가치관에 기초한 목표, 방법과 관련한 자신의 의지, 혹은 사회 경제적 조건과 같은 타의에 의하여 이행이 완료될 수도, 늦어질 수도, 일부만 완료될 수도 있는 상황임. 인간존엄과 행복추구 권리에 입각하여, 다양성의 확산에 따른 자신만의 이행목표와 방법의 선택을 존중하고 원활한 자원 제공을 위하여 자원수급의 내용과 자격과 관련된 지식 및 정보 전달과 개인의 목표실현을 위한 다양한 교육, 훈련기회 확대가 요구됨.

○ 정책개발의 전제로서 후기청소년 기본권의 연구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청소년기본권 관련 연구는 18세 미만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 많은 부분을 참고함에 따라, 19세-24세 후기청소년의 기본권과 정책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음. 특히 우리나라는 사회주의권의 이슈선점과 관련된 후기청소년 관련 논의의 비활성화라는 국외의 배경과는 달리, 한국전쟁, 군부독재정권과의 대치라는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서 비롯된 후기청소년지원정책 논의의 위축을 해소하고 후기청소년정책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들과 관련한 기본권 연구와 꾸준한 담론형성, 토론이 요구됨.

참고문헌

- Arnett, Jeffrey J. 2015. Emerging Adulthood-The Winding Road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2n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Erikson, Erik H. 1968. Identity-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Inc.
- Gillis, John R. 1981. Youth and History-Tradition and Change in European Age Relations, 1770-Present. San Diego: Academic press, Inc.
- Hall, G. S. 1907. (2012 복사). Adolescence Its Psychology and Its Relations to Physiology, Anthropology, Sociology, Sex, Crime, Religion and Education Vol. 1. Forgotten Books.
- Keniston, Kenneth 1971. Youth and Dissent-The Rise of a New Opposition.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 UNESCO 1981. Youth in the 1980s. Paris: The Unesco Press.

[illegible]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designed as a memo pad. It features horizontal ruling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A single vertical line runs along the left edge, creating a narrow margin. In the upper right-hand corner, the word "MEMO" is printed in a bold, black, sans-serif typeface.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designed for writing. It features horizontal ruling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A single vertical margin line runs parallel to the left edge, creating a narrow column for notes or a header. The word "MEMO" is printed in a bold, black, sans-serif font in the upper right corner.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designed as a memo pad. It features horizontal ruling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A single vertical line runs parallel to the left edge, creating a narrow margin. In the upper right-hand corner, the word "MEMO" is printed in a bold, black, sans-serif typeface.

포럼자료집 20-S30

제38회 청소년정책포럼
후기청소년 지원정책의 과제와 방향

인쇄일 : 2020년 12월 16일

발행일 : 2020년 12월 17일

발행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6/7층
(044-415-2114)

발행인 : 김현철

인쇄처 : 경성문화사 (044-868-3537)

* 이 책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 없이 변경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